

「오카야마시장 메일 매거진 (70)」 2016년 8월 12일 호

【고교생여러분, 감동을 주어 고마워】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오모리입니다

현재, 중국지방 5개현과 와카야마현을 무대로 총 30개 경기에서 고교생 넘버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전국고교종합체육대회(인터하이)가 개최되어, 대회 첫날인 7월 28일에는 황태자를 모시고 선수·관계자 약 4,200명이 참가하여 지푸 아리나 오카야마에서 종합 개최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저도 개최 시 시장으로서 참석하였습시다만, 작년 인터하이가 개최되었던 와카야마현 선수단 모두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쿠마모토 지진 피해지인 구마모토현 선수단은 「전국에서의 따뜻한 지원 감사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47도도부현의 모든 선수·관계자가 하나가 된 입장행진은 감동적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회 기간 중은 고교생들의 뜨거운 경쟁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시간이 되는 한 대회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먼저 남녀육상 100m 결승을 관전하였을 때는 여자 100m에서 우승을 장식한 사이토 선수(구라시키 중앙 고교 2년생)의 압도적인 속도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사이토 선수는 그 후 진행된 여자 400m 릴레이, 여자 200m에서도 우승하여 오카야마 선수 중에서는 남녀를 통하여 처음으로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역풍에도 전력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이 골 직후 쓰러지는 광경은 사토 다카코의 『한순간 바람이 되어라』 (2007년에 서점대상을 수상) 에서 그려진 육상경기에 정열을 쏟는 고교생들과 겹쳐져, 지금까지의 연습은 분명 우리의 상상을 넘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검도 경기의 개최식에서는 과연 예절을 중히 여기는 스포츠답게 「야스메(쉬어)」라는 지시가 있을 때도 전원 다리를 펴지 않고 좌정한 채. 저였으면 분명 바로 다리를 펴고 앉았을텐데, 선수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좌정을 하고 있어, 평소의 단련 성과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남녀 더블 결승과 여자 싱글 결승을 관전했을 때에는, 속도감이 넘치는 뜨거운 시합 전개에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 체력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출전한 선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결과에 만족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양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지한 눈빛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들을 매료시키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오카야마에 신선한 바람을 전해준 고교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림과 동시에 이후, 더욱더 성장하여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